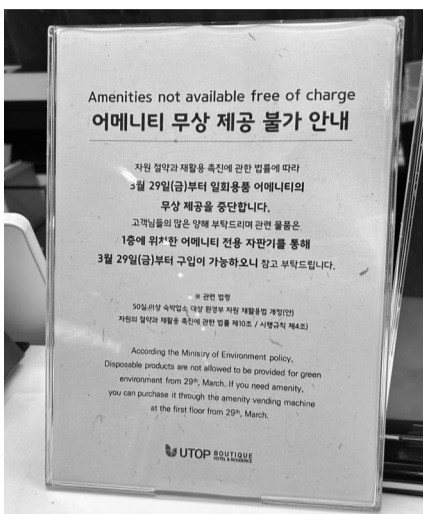


일회용품 사용 규제... “호텔 칫솔·치약 사라졌다”

자원재활용법 대상 호텔 가보니

무상 제공 중단...프린트서 판매업계, 다리미 대여 등 서비스 전환 플라스틱 제품 판매 법 취지 퇴색



광주 한 대형 호텔 프린트에 지난달 29일 시행된 자원재활용법으로 인한 일회용품 규제 안내문이 비치돼 있다.

최근 타지역으로 1박2일 출장을 갔던 A씨는 자신이 묵던 호텔에서 어메니티(칫솔, 치약 등 일회용품)가 보이지 않아 당황했다. 호텔 측에서 무상으로 칫솔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해사다. 출장길 간소하게 챙긴 집에는 기본 위생도구조차 없어 A씨는 호텔 프린트에서 500원을 지불하고 칫솔을 구매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개정안(자원재활용법)이 시행되면서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무료로 제공됐던 칫솔, 치약 등 일회용품이 사라졌다.

2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객실 50개 이상의 숙박업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규제 대상은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면도기 등 5개 종류다. 이를 위

반한 숙박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에 호텔업계에서는 샴푸, 바디워시 등을 다화용 디스펜서(리필용 용기)로 변경하거나 일회용품 자판기를 들여놓는 등 법 시행에 맞춰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규제 시행 이후 찾은 광주 한 대형 호텔 프린트에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9일부터 일회용품 어메니티의 무상 제공을 중단합니다. 고객님들이 많은 양에 부득이하게 관련 물품은 1층에 위치한 어메니티 전용 자판기를 통해 3월 29일(금)부터 구입이 가능하시니 알고 부탁드립니다.”

이날 규제 시행 이후 찾은 광주 한 대형 호텔 프린트에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9일부터 일회용품 어메니티의 무상 제공을 중단한다”며 “1층에 위치한 어메니티 전용 자판기를 통해 구입이 가능하시니 고객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다.

이러한 안내는 예약 문자를 통해서도 공지되고 있으며 호텔 엘리베이터 등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실제 1층 로비에는 칫솔·치약은 물론 빗, 화장솜, 샤워타올, 비누, 칫솔·치약을 한데 모은 세트 상품을 판매하는 자동판

매기가 놓여 있었다. 해당 호텔은 칫솔 2개, 소용량 치약 2개에 1000원, 이외 세트 상품은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기본 객실부터 스위트룸, 고가의 팬트 하우스에서도 객실 등급 차등 없이 일회용품 무상 제공 규제가 이뤄졌다. 해당 호텔의 경우 지난 2020년 오픈 때부터 대용량 디스펜서를 이용해 왔으나 스위트룸 이상 등급 객실의 경우 프로모션을 통해 고급 화장품 브랜드의 어메니티를 제공했었다.

광주지역의 또 다른 대형 호텔에서는 자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회용품을 판매하고, 편의점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에 만 프린트에서 판매하고 있었다. 편의점과 프린트 일회용품 가격은 치약·칫솔, 면도기 각 3300원이다.

호텔 관계자는 “시행 이후 고객들이 너그럽게 이해해 큰 불만을 제기하진 않았지만, 비누마저도 주지 않는다며 탐탁지 않아 하는 고객도 종종 있다. 고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중지하게 된 경우 고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칫솔·치약을 개당 500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며 “중단된 어메니티 제공 이외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미, 다리미판 등 대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 정책인 자원재활용법 시행에 일부 소비자 사이에서는 환경보호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법 효용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장이 잦아 비즈니스호텔을 자주 이용한다는 B씨는 “대다수 호텔이 높은 비용에 생분해가 되는 친환경 제품보다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한다”며 “호텔 내부에 일회용품을 없앤다고 해도 편의점이나 어메니티 자판기를 통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구매하면 그만이어서 환경보호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사진=박소영 기자



롯데백화점 광주점, 다이아제품 특가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루트리 매장에서는 오는 30일까지 창립 20주년 기념 다이아몬드 특별기획 상품을 선보인다. 다이아몬드는 ‘고귀’라는 의미를 가진 4월의 탄생석으로 결혼예물로 지금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본격적인 웨딩 시즌을 맞아 해당 매장에서는 반지, 목걸이 등의 다이아몬드 상품의 특가 혜택과 GIA 다이아제품 구매 시 동일한 사이즈의 랩다리아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또 골든듀 매장에서 캐럿 다이아몬드 나석 기획 특가 혜택 및 다이아제품 5~10% 할인 행사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기아, 연식 변경 모델 ‘The 2024 K9’ 출시

고급감 강화 대표 플래그십 세단

기아가 대표 플래그십 세단 K9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4 K9’ (사진)을 2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The 2024 K9은 내·외장 디자인을 한층 고급화하고 신규 편의사양을 적용해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아는 이번 K9의 외장에 수평형 패턴의 라디에이터 그릴과 19인치 다크 스포터링 휠을 새롭게 적용하고 신규 내·외장 색상을 도입해 플래그십 이미지를 더욱 높였다.

특히 수평형 패턴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은 테두리의 얇아진 크롬 베젤과 어우러져 안정적이고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해 K9만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형성한다.

The 2024 K9의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



‘페블 그레이’를 포함해 총 5종으로 운영되며, 내장 색상은 ‘마션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 색상이 새롭게 추가돼 총 4종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기아는 The 2024 K9의 기본 트림부터 △애프터 블로우 △타입 USB 단자(전·후석 콘솔 내부) △차량용 소화기 등 고객 선호 사양 및 안전 사양을 신규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를 기아 차종 최초로 운영하고, 동승석 메모

리 시트를 마스터즈 트림부터 기본화하는 등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은 동승자 편의성을 확보했다.

The 2024 K9의 판매 가격은 3.8 가솔린 모델 △플래티넘 5933만원 △베스트 셀렉션 I 6665만원 △마스터즈 7395만원 △베스트 셀렉션 II 8210만원이며, 3.3 가솔린 터보 모델 △플래티넘 6588만원 △베스트 셀렉션 I 7241만원 △마스터즈 7870만원 △베스트 셀렉션 II 8685만원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관광공사, 국내 최초 프로스포츠 연계상품 출시

광주관광공사가 국내 최초로 여행사와 손잡고 광주FC, 기아타이거즈 등 지역 연고 프로스포츠와 연계한 관광상품을 출시했다.

2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여행공방, 흥익여행(주)과 업무협약을 체결, 프로스포츠 연계 상품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스포츠관광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은행, 다자녀행복카드 캐시백 이벤트

광주은행은 오는 12월31일까지 ‘다자녀행복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캐시백 이벤트는 ‘다자녀행복카드’를 누적 1만원 초과 이용 시 1만원(해외결제) 또는 9000원(국내전용) 캐시백을 지급한다.

경품 이벤트는 2024년에 둘째아 이상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관광공사와 두 여행사는 △광주 프로스포츠 관람형 특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 개발 및 운영 △상품의 원활한 모객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3위를 달성해 돌풍을 일으킨 광주FC와 프로야구 명문 구단 기아타이거즈의 홈경기 관람객을 대

상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광주만의 차별화된 스포츠관광상품을 선보이게 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를 모두 연계한 관광상품은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것으로, 광주가 본격적인 체류형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병하기자

광주전남중기청 ‘수출지원 가이드’ 발간

수출유관기관 지원사업 수록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24년도 수출 지원사업을 한데 모은 ‘한눈에 보는 수출지원가이드 2024’를 제작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책자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포함한 광주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광주전남지원단,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 등 32개의 수출유관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184개의 수출지원사업을 수록했다.

중소기업이 수출지원 사업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획-마케팅-이행’ 3 단계별로 나눠 사업별 일정 및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수록함으로써 기업들의 효율적인 정보탐색을 지원한다.

기획단계에는 기업이 수출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정보제공, 해외 인증·특허 지원, FTA 활용, 교육, 컨설팅 등을 담았다.

마케팅 단계에는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지원,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수록, 글로벌 진출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행단계에는 물류 및 통관 지원, 개별 바이어 초청 등 실제 수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담았다.

책자를 받아보길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수출유관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파일로 받아보길 원하는 기업은 광주전남지방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site/gwangju)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박소영 기자

카드 수 5000좌를 돌파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신청인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광주 외뱅크(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